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만족도 높아

전북교육청, 익산 '어울누리'·군산 '자몽' 등 쉼터·배움터로서 역할 충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와 꿈을 키우는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청소년 자치문화공간으로 2018년 익산 '어울누리' 개관에 이어 2020년에는 군산에 '자몽'을 개관했다.

이들 기관은 코로나19로 휴관과 재개관을 반복하는 상황을 맞았지만 청소년들은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먼저 익산 '어울누리'는 소규모 활

동으로 마련한 청소년 도시농부, 요리 꿈밭(디지털 요리 및 나눔), 뉴티브(메이크업), 그림속회(그림그리기), R&F(영화제작), 어울기자단, 시와 캘리의 만남, 팟캐스트 방송, 예코어드밴처 등을 내실있게 진행했다.

또한 2020 어울누리 온라인 청소년 축제 를 통해 어울록 로봇경주, 나도 시인 머거본 어서와, 노나메기 등 비대면으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창의력을 기르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군산 자몽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진로와 꿈을 찾고 학교 밖 세상과 삶을 공부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학생주도 프로젝트 19팀, 마을학교 프로그램 7개, 학생자치회 운영, 청소년 인문학, 자몽투어 등이 진행됐다.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은 학생자치회를 통해 학생자치활동이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면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창의적 교육활

동을 경험하도록 돕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많은 기관과 마을 어른들의 참여와 관심을 불러 일으켜 지역 청소년들에게 따뜻하고 즐거운 지역의 청소년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도 청소년들의 쉼터와 배움터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면서 "2021년은 코로나 시대에 맞는 온라인 기반의 활동도 준비하면서, 청소년들이 조화롭게 어울리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정은성기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전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 기업이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수상 기업은 전북대 초기 창업패키지 사업 지원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주)메디앤리서치(대표 이서형)다. 이 기업은 30일 전북지방벤처기업청에서 열린 2020년도 창업유공자 시상식에서 장관상을 받았다.

이서형 대표는 이 대학 상대를 졸업하고 지난 2018년 전북대 창업지원을 통해 창업에 성공했다.

메디앤리서치는 의료용 리프팅 실과 필러를 주요 수출 품목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11억 원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는 등 유망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최근엔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 2건의 기술을 이전받아 화장품 원료 개발을 완료했으며, 자체 원료를 사용한 자사 브랜드 'JUS cosmetic'을 런칭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LINC+사업단이 온라인 흡소핑 형태의 행사를 마련,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에는 두지프로바이오틱스(주), 농업회사법인(주)라이프드림, 농업회사법인(유)메밀꽃 피는 향이리, 하만장&B, 자연숨결그대로, 마타나퍼니처 등 7개의 지역 기업에서 20여개의 제품이 참여했다.

전북대 LINC+사업단, 지역 기업 판로 개척 지원

흡소핑 형태 판매 행사 마련

전북대 LINC+사업단이 온라인 흡소핑 형태의 행사를 마련,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에는 두지프로바이오틱스(주), 농업회사법인(주)라이프드림, 농업회사법인(유)메밀꽃 피는 향이리, 하만장&B, 자연숨결그대로, 마타나퍼니처 등 7개의 지역 기업에서 20여개의 제품이 참여했다. 사업단은 이들

지역 기업 제품 홍보를 위해 직접 스튜디오를 조성하고, 전문 쇼호스트와 특별 게스트 등을 섭외해 방송을 진행하며 실시간 주문 및 이벤트를 통해 판로 확대에 힘썼다. 이번 패밀라마켓은 전북대 링크플러스사업단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watch?v=OP1BAx2ED6&t=7210s>)에서 지난 28일 120여 분 동안 실시간으로 중계됐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탄소융합공학과 중기 재직자 편입생 모집

전주대 탄소융합공학과가 1월 4일부터 29일까지 등록금을 납부 지원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봄학기 편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는 이 과정을 통해 일하면서 탄소융합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전라북도 핵심 산업인 탄소 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 수업은 매주 평일 야간 화, 수 목 3일간 진행되

며, 직장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온라인으로도 수강 가능하다. 탄소를 리 및 탄소화합, 탄소소재, 탄소분자공학과 기술경영 등의 교과목을 배우게 되며, 전원에서 유일하게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탄소공학 학사·석사·박사 전 과정을 갖추고 있어 연계 학습도 가능하다.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중소기업 재직자 중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재교육형)이거나 학과원에서 개시일로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동시체용형)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김동근 전북대학교수, 중앙노동위 '올해의 위원'

노동관계 안정·발전 공로



수행으로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초심유지를 98.1%를 기록하는 성과도 남겼다. 이 밖에도 노동위원회 주관

전북대학교 김동근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노사분쟁의 공정한 해결과 노동관계 안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중앙노동위원회 올해의 위원으로 선정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김동근 교수에게 노동위 적극적인 참여와 심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공익위원으로 활동하며 적극적으로 꾸준한 활동으로 13년 동안 161회 심판회의에 참석하는 열의를 보였다.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공정한 판단을 도출했으며, 노동위원회 판정의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김 교수는 공정하고 적극적인 사건처리로 근로자 권리구제 및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적극적인 업무

전원회의와 워크숍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 '수요학습 동아리'를 통해 조사관들에게 법률지식 등을 전수해왔다.

한편 2002년부터 전북대 법대와 법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해 온 김동근 교수는 그간 법학전문대학원장 겸 기획부처장, 홍보부처장 등 대학 주요 보직을 거쳤다. 또한 전주지방법원 국선변호사선임 감사위원·조정위원, 전주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구제센터 화해중재분과위원, 광주고등검찰청 형사상소심 및 국가수무 상소심사위원회의 위원, 전라북도경찰청 손실보상심의회의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정은성 기자

새솔유치원, 우수교육시설 선정

창의성·친환경 연계성으로 23개 작품 중 '최우수상' 수상

전주새솔유치원(원장 오미요·사진)이 2020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로 선정됐다.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0년도 대한민국 우수교육시설 공모전에서 전주새솔유치원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신축, 증축, 개축 및 새 단장한 교육시설 총 23개 작품이 접수됐다.

대상은 충남 청양 정산중학교, 최우수상은 전북 전주 새솔유치원, 서울에 숭례고 학생회관, 우수상은 세종 반곡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 서울 북서울중학교, 특별상은 중국 산둥성 연대한국학교가 수상했다.

우수 교육시설 선정은 건축설계, 시공, 교육 분야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설계개요와 자료집(포트폴리오)을 바탕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실사(코로나19 상황으로 동영상 대체)를 실시 상위 점수를 획득한 작품을 최종 결정했다.

전주새솔유치원은 엄마의 품을 담은 열린 '모'자 형태로 주출입구 부근에 행정영역을 배치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설계했다. 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 절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건축했다.

이 외에도 유치원 학습환경을 우선시해 교실을 남향, 동남향으로 배치하고 전 교실에서 복도를 통해 중정(꿈마당)으로 나가 뛰어놀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하는 등 놀이영역, 학습영역, 행정영역의 연계로 교육과정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소통 공간 조성 및 디자인 개선 측면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최종 선정된 7개 작품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될 예정이며, 교육부에서는 우수 교육시설임을 알리는 현판을 제공해 각 기관에 부착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주 새솔유치원이 우수 교육시설로 선정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교육 시설에 창의성, 친환경 연계성 등을 담아내 학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혁신으로 상생건설, 비전으로 희망건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모두와 함께 상생하고 모두의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회장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제27대 회장단 및 제6대 대표회원”

회장 윤방섭	국종훈	운영위원 강신길	운영위원 이용규	대표회원 김지원	대표회원 김철빈	대표회원 유명숙	대표회원 조희곤
직전회장 정대영	김효성	김영량	이재선	대표회원 고두영	김철상	유병수	대표회원 지명철
부회장 라규환	김만열	김영욱	임재훈	대표회원 고원석	김형모	유성희	대표회원 진동신
부회장 양선기	김성민	김용태	장기현	대표회원 권상민	김형주	이기열	대표회원 최경호
부회장 박재환	김양희	김종원	장용준	대표회원 김광현	남옥이	이민규	대표회원 최용호
감사사 조철철	나춘교	박영자	정준수	대표회원 김대수	라현연	이성모	대표회원 최충환
원로회원 이호석	문길천	배진석	조금형	대표회원 김문숙	박하명	이용만	대표회원 최태용
원로회원 김성권	박형식	송영석	채이석	대표회원 김미정	박혜경	이우재	대표회원 한경완
원로회원 이승원	이공희	안장환	최도성	대표회원 김병학	박연이	이창규	대표회원 한용진
원로회원 김송희	이준범	윤석	최태종	대표회원 김성광	서오성	이장춘	대표회원 한지훈
원로회원 이정기	전욱	윤신학	한상우	대표회원 김성우	송만호	이해훈	대표회원 황수원
원로회원 이병도	정준모	윤일남		대표회원 김영우	송재철	이형우	대표회원 황재준
원로회원 김승수	최산성	이동규		대표회원 김재호	신전만	임장수	대표회원 황효영
원로회원 이동근	최현호			대표회원 김종우	오영훈	전주형	대표회원 황희정
원로회원 조병두				대표회원 김창수	유득한	정영주	

(기초:성명가나다순)